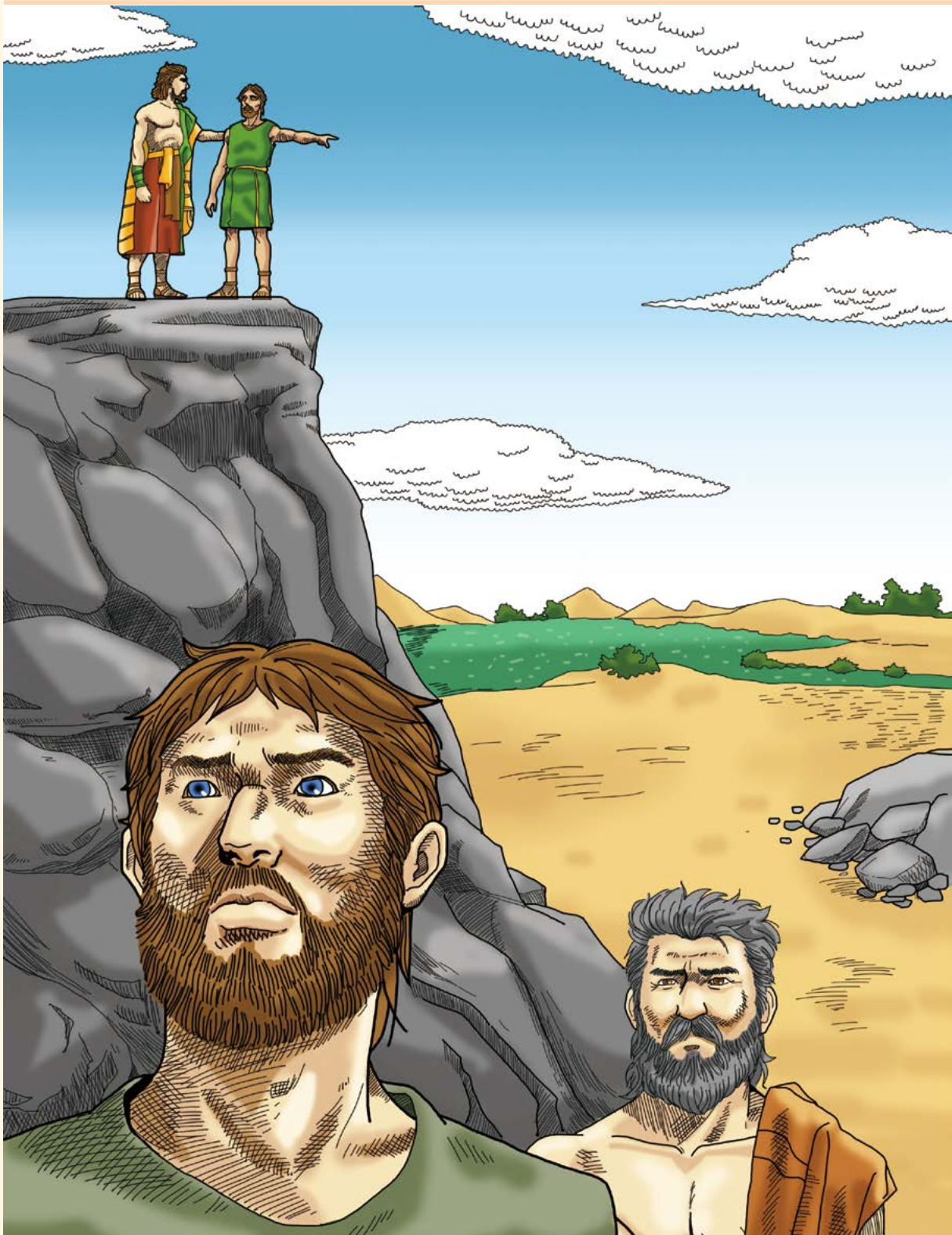


13 아브람의 조카 롯

창세기 13장 ~ 14장



우리는 한 형제
이니 서로 다투
지 말고 우리의
목자끼리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
니 너는 나를 떠
나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롯은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롯은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떠날 때 함께 나왔습니다.

아브람이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소와 양 등 가축이 많고 금과 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게 된 땅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가축을 키울 땅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니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의 목자끼리 다투게 하지 마라.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성경 암송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20)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요단 들판을 선택하여 아브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들판에서 ¹⁾장막을 치고 살다가 소돔성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또, 내가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너는 일어나 이 땅을 가로로 또 세로로 다녀 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한편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그 주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과 사해 바다 근처의 여러 나라 왕들이 12년간 섬기던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화가 난 그돌라오멜 왕은 주위의 여러 나라 왕과 함께 싯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은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재물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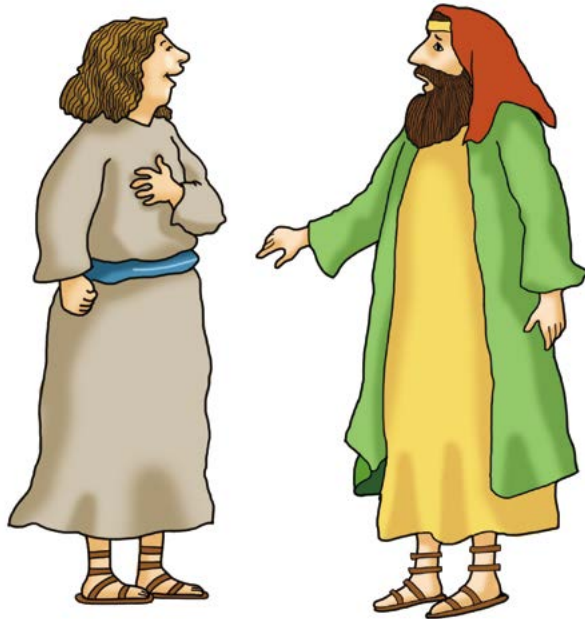
¹⁾장막: 천으로 만든 집(오늘날의 텐트와 비슷함).

헤브론에 살던 아브람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브람은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해냈으며 재물까지 모두 되찾아 주었습니다.

롯은 이 일이 있는 후에도 아브람과 함께 하지 않고 소돔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로 멸망당했으며 롯은 딸들과 함께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롯의 선택



아브람의 질문에 고민하는 롯의 모습입니다. 읽고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롯 땅이 너무 좁고,
또 자네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
이제 나를 떠나 원하는
곳으로 가게.



저쪽 요단 들판을 보니 물도
많고 기름져 보이는데,
그래 저기로 가면 땅이 좁아 싸울 일도
없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아브람 삼촌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아브람 삼촌과 함께
하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롯은 어떤 선택을 하였나요?



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면 아브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봐, 롯 땅이 너무
좁고, 또 자네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 이제 나를
떠나 원하는 곳으로
가게.



아브람 삼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에 롯이 을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였는고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10)



롯의 선택의 결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롯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다음 문제를 풀며 생각해 봅시다.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



롯이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갔을 때, 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

.....

.....



롯은 어떻게 구출받았나요?

.....

.....

.....

.....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 과 네 눈이 ■■■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 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9)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좋은 선택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성경책을 앞에 두고 영민이는 고민을 합니다.

"성경책을 읽을까? 아니면 만화책을 볼까? TV를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맞아, 컴퓨터 게임도 재미있잖아!"

어느 날, 주일 영민이는 또 고민을 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놀이공원 다녀 와서 노래방 가자고 했는데,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란 말이야!"

교회에 간 영민이는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또 고민을 합니다.

"이 돈을 가지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헌금을 꼭 해야 하나?"



위 영민이의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손해 보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

* 내가 손해 보는 것

*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우습게 여겼던가?
선생님의 말씀을 좇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기어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구나. 흑흑흑
(잠언 5:12~14)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좋은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장 좋은 대로만 행동한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 보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분반시간 오랜만에 선생님이 맛있는 분식을 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왜 안 드세요?" "응, 선생님은 배고프지 않단다."

나는 선생님이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였습니다. '배고픈데 나 혼자 먹을까? 어떻게 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나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배 고프지 않아요. 선생님이 드세요."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선생님은 마지 못해 함께 먹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봐 주시겠죠?

부모님란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parent notes.

선생님란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eacher notes.



이것만은 기억해요!

1과 학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학년을 새 마음과 다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2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성경말씀을 주셨습니다.

3과 천지창조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4과 사람의 창조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5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6과 가죽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7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열납하셨습니다.

8과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서는 죄로 가득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9과 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10과 바벨탑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흠으셨습니다.

11과 하나님을 경외한 욥

욥은 이유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2과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3과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릇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아브람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